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강원도 영월군 죽전면

다래골길 5가 영월 월드프렌즈 교직원

112기 교학생



□ □ □ - □ □ □

받는 사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186가

(하북리 288)

영월소방서

영월군의 소식을
많은 분들의

발빠르게 전해주시는

구체사항 고맙습니다! ☺

□ 2 6 - 2 가 5

안녕하세요. 영월의 화재와 모든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영월소방서 대원님들 ☺

저는 영월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112기 교학생입니다. 오늘 영월소방서에서 받은
편지

교육, 실습을 통해 소방서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의 수고하심에 정말 감동 받고 감사해서 엽서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112번신 안주에든 모든 모습으로 모든 교육과 실습에 함께 해주신 그 모습이

정말 인상남았습니다. 목숨을 부지하게 해주지만 나 아닌 다른 이의 목숨을 부지하게 여기시는

소방관. 소방대원님들의 노고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날이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엄청 뜨거운 불길에 들어가셔야만 하시고, 저희는 간접체험으로 경험했던

영역체험.. 정말 많이 잘 보이지 않아 당황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생생이 걸린 것이라면

일기에 너무나 끔찍스러웠습니다. 로프유기, 화강기 체험, CPR 모두 모두 유익한 시간으로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 순화전 실습도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오늘 수고하시고 고생해주신

영월소방서 모든 관계자 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 어렸을 적 꿈이 소방관이었는데 오늘

하루 소방관 체험을 하게 되어 기뻐요. 오랜 기억될 날이네요~ 모두 모두 뭉 뭉 경감하세요. 고맙습니다.

